

이자료는 1.23(화) 조건
부터 사용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
최근 자금시장의 선순환구조

2001.1.22

재 정 경 제 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

(과장 최중경 500-5343)

공 보 관

□ 그 동안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기업자금 사정이 위축된 가운데 연말에는 금융기관의 BIS비율관리와 기업부채관리에 따라 기업여신이 감소

□ 그러나 금년들어 자금시장 경색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

○ 은행의 BIS비율 관리부담이 완화되어 대출여건이 개선된 데다 6개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등으로 은행의 수신상황도 호전

- 은행대출이 1월들어(1~10일중) 1.9조원이 증가하였음

- 감소세를 보였던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수신은 1월들어 증가세로 반전

*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수신 :

(00.11월중) -0.3조원 (12월중) -2.6조원 (01.1.1~12중) +1.8조원

○ 국고채 금리의 하락(2000말 6.7% → 2001.1.15 5.99%), 구조조정의 가시화, 정부의 자금시장 안정시책등으로 회사채 시장도 점차 회복되는 조짐(1.1~15중 4,934억원 순발행)

- 회사채 신속인수방안 시행등으로 차환발행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시장에서 인식되는 기업의 신용위험이 크게 완화

- 국고채 수익률 하락으로 회사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신·연기금·보험등 채권운용기관의 회사채 매입수요 증가

- 이에 따라 BBB등급 채권 발행이 증가(12월 5,500억원 → 1.1~20일중 2,990억원)

○ 증시가 금년들어 활력을 되찾으면서 벤처기업등의 자금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완화

- 구조조정에 대한 성과와 연기금 주식투자확대, 근로자주식저축 도입 등 장기안정적인 수요기반확충 시책등이 기여

* 고객예탁금 추이 : 6.1조원(2000말) → 8.6조원(2001.1.13)

외국인투자 : 1.1~15중 1.9조원

○ CP발행도 연말 감축분등이 rebound되면서 크게 확대 (1.1~15중 +4.7조원)되었으며, 당좌대출한도 소진율도 하락(11월말 19.9%→12.25일 18.6%→1.10일 15.8%)

○ 私債시장에서도 할인대상채권의 종류가 점점 많아지고 할인률도 점차 낮아지는 모습